

신라개[新羅犬]와 신라개 이야기의 문화원형적 연구

강석근*

|| 차례 ||

1. 머리말
2. 신라개의 역사와 ‘경주개 동경이’에 대한 문헌적 접근
3. 신라 왕실의 후계를 인도한 영물(靈物), 신라개
4. 신라 왕실의 폐륜을 폭로한 큰개[오(獒)개] 이야기
5. 백제 멸망을 예견한 개, 동경이 이야기
6. 사천왕사 벽화 속의 신라개와 가상(假想) 현실
7.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신라문화 관련 문헌에 나타난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의 문화원형적 특성을 고찰한 논문이다. 경주지역 전래의 토종개 ‘경주개 동경이’는 2012년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탑골마을은 ‘동경이마을’로 지정되었고, 제3회(2016년) ‘개관 축제’가 이곳에서 개최된 바 있다.

개는 약 14,000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매우 친근한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근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소급되며, 꼬리가 짧은 경주개 동경이는 5~6세기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토우와 신라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동경이의 체형은 진돗개와 비슷하지만 꼬리는 사슴처럼 짧은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개들이 가진 일반적인 이미지는 의견(義犬), 충견(忠犬), 벽사(關邪)와 아울러 ‘개새끼’의 경우처럼 비속성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는 이중성을 갖지만, 신라개의 이미지는 더욱 다채롭고 원형적이다.

신라개는 생식기가 아주 큰 지증왕의 왕비를 찾게 하여 왕자를 생산함으로써 신라왕실을 안정시킨 매우 특별한 영물(靈物)이었으며, 또한 서역에서 수입된 큰개[獒]가 진흥왕의 동륜태자를 ‘몰어 죽인 사건[獒事]’은 신라왕실의 문란한 성생활과 엮기적인 폐륜 행위를 만천하에 알렸다. 이는 사람이 아닌 개가 신라사와 신라왕실사를 뒤흔든 대사건

* 동국대학교 아시아연구원 전임연구원. ksk803@hanmail.net

이었다. 아울러 의자왕에게 백제의 망국을 예고한 개는 꼬리가 ‘들사슴처럼 생긴[狀如野鹿, 녹미구(鹿尾狗)] 개’ 즉 경주개 동경이었다. 아울러 사천왕사 벽화 속에 그려진 그림 개가 벽에서 나와 사천왕사의 뜰을 배회하며, 짓는다는 내용은 신라개가 신라망국을 예고한 것이지만, 이런 4차원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는 즉 매트릭스의 현실, 가상현실의 이야기로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매우 재미있는 소재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라개는 후대의 개들보다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와 이야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는 한국의 개 연구에는 물론 ‘동경이 테마파크’, ‘국견 박물관 설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아울러 신라문화의 산업적, 문화적, 교육적 활용에 크게 도움 되는 문화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신라(新羅)개, 경주개, 문화원형, 천연기념물, 동경이마을, 사천왕사(四天王寺), 매트릭스.

1. 머리말

개는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 온 친근한 동물로서 수렵, 목양, 경주, 수색, 식용, 애완 등을 목적으로 널리 사육되어 왔다. 개는 또한 지력(智力), 순응력(順興性), 작업욕(作業慾), 과민성(過敏性), 추적 추구력(嗅跡 追求力)¹⁾ 등이 뛰어나서 인간에게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던 동물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개로 인식되어 온 진돗개도 충직성, 귀소성, 용맹성, 수렵성²⁾이 뛰어나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반려동물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브리테니커세계백과사전』에 의하면, 개는 12,000년에서부터 14,000년 전 사이에 유라시아에서 기원하여 10,000년 전부터 인간과 같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에 의해 순화, 사육되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페르시아 베르트트동물의 것으로 서기전 9,500년경으로 추산된다. 서기전 9,000년경으로 추산되는 독일 서부의 생켄베르크 개는 크기와 두개골의 형태가 덩고와

1) 김종대, 『12개의 민속과 상징』, 국학자료원, 1997. 12면.

2) 하지홍·임인학, 『한국의 토종개』, 대원사, 1993. 53면.

대단히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개가 제사의 희생물로 사용된 경우는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의 것이 가장 오래 되었고, 일본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유물로서 개의 이빨이 발견되었다. 개는 가장 먼저 가축으로 사육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동기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사육된 증거로 다량의 개뼈들이 출토되고 있다.³⁾ 통일신라 때에는 경주시 황성동 376번지 유적의 건물터에서 개의 두개골이 발견되었고, 국립경주박물관 우물부지에서는 4마리의 개뼈가 발견되었다.⁴⁾

개는 한자로는 견(犬), 구(狗), 술(戌), 방(龍), 오(獒), 초(彡+召), 반(彡+般)이 자주 쓰이고, 기(猊), 교(狡)는 작은 개를 의미한다. 개가 오랫동안 인간의 삶과 함께해 온 까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와 관련된 다양한 세시풍속, 민속, 전설, 속담, 민요 등이 있으며, 또한 개는 의견(義犬), 충견(忠犬)의 이미지와 동시에 ‘개새끼’란 단어처럼 비속성을 대표하는 말⁵⁾로 쓰이는 이중성을 가진다.

또한 동양에서 개는 십이지(十二支)의 하나인 ‘술(戌)’의 의미를 가진다. 십이지 동물에 대한 최초 기록은 동한(東漢) 왕충(王充, 27 ~ 97)의 『논형(論衡)』이며, 이 책에서 술(戌)은 토(土)이며 이에 해당되는 동물은 개⁶⁾라고 하였다. 또 개가 주로 밤에 집을 지키는 시간인 19-21시를 술시(戌時)라고 불렀다.

개에 대한 흔적들은 신석기 시대에까지 소급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은 5~6세기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개 토우와 신라 문헌에서도 확인되며, 4~5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등장한다.⁷⁾ 신라고분에서는 진돗개의 외형에 사슴

3) 김원룡, 『한국고학개설』 3판, 일지사, 1986. 72면.

4) 국립경주박물관,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 2011. 14면.

5) 김종대, 「개의 민속과 상징」, 김선풍 외, 『민속학적으로 본 열두 띠 이야기』, 집문당, 1996. 382면.

6) 허균, 『십이지의 문화사』, 돌베개, 2010. 37면.

7) 최석규, 「한국 토종개와 경주 동경개[東京狗]의 역사적 고찰」, 『경주문화논총』 제 10집,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7. 187면. 개가 그려진 고구려 고분에는 덕흥리 고분 408호, 무용총, 각저총, 장천 1호분 등이 있다.

처럼 꼬리가 짧은 개토우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신라고분에서 발견된 개토우 33점⁸⁾ 가운데 15~16개는 꼬리가 짧아, 현대 ‘경주개 동경이’의 역사적 연원과 그 원형적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5~6세기경의 꼬리 짧은 개모양의 토우 파편들은 경주개 ‘동경이’의 문화유전자적 상징물이며, 경제적 공익성이 있는 유물로 평가된다.

또한 신라왕릉 등에 구축한 십이지신상의 십이지는 부장용 명기(明器)에서부터, 왕릉 외부 호석, 탑 부도, 불교건축물 불교장엄의 십이지신상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었고⁹⁾, 분묘의 십이지는 주로 신라 왕릉의 수호석이 되었다. 통일신라 때 분묘의 십이지신상은 위나 아래로 침입하는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벽사부¹⁰⁾로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鎭墓獸)의 역할을 해왔다. 신라의 능묘 가운데 성덕왕릉, 패릉, 경덕왕릉, 헌덕왕릉, 흥덕왕릉, 진덕왕릉, 전 김유신묘, 구정동 방형분·낭산 능지탑 구황동 3층 석탑, 전 황복사지 건물지 기단에 십이지신상이 조각되어 있고,¹¹⁾ 특히 술상은 신라인의 개에 대한 인식과 그 문화사적 의미를 잘 보여준다.

신라 이후 개와 관련된 민속, 의구총설화, 의견설화, 환생설화를 비롯한 다양한 개와 관련된 속담 등, 개와 관련된 문화적, 문학적 자산들은 매우 많다. 특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신라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문학적 자산들은 우리나라 개 이야기의 역사적 전승과 원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에 필자는 경주개 동경이의 주된 근거지인 경주의 신라문화 관련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등과 후대의 자료를 통해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가 가진 문화원형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자료들은 신라개의 문화사와 문명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다.

8) 이창식, 「경주개 동경이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 『신라문화』 제46집,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15.399면.

9) 이창식, 「경주개 동경이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 『신라문화』 제46집,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15. 399면.

10) 김영자, 『한국의 벽사부적』, 대원사, 2008. 28면.

11) 최민희, 「성덕왕릉 조영과 12지신상의 출현」,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면.

이에 본고는 신라문화 관련문헌에 나타난 개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신라개[新羅犬]와 신라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천연기념물로 제540호(2012. 11)로 지정된 ‘경주개[犬] 동경이’의 원형과 조상에 해당되는 신라개는 신라 왕실의 후계를 인도해준 영물(靈物)이라는 점을 고찰하고, 두 번째는 신라개 즉 큰개[獒]는 진평왕의 동륜(銅輪)태자와 아울러 이후에 진지왕이 된 사륜(舍輪)태자와 진평왕의 후궁인 보명, 미실과 연관된 신라왕실의 추악한 불륜을 폭로하였고, 셋째는 백제의 망국을 예고했던 개, 즉 ‘꼬리가 들사슴처럼 생긴 개[狀如野鹿]’는 외형상의 특징으로 보아 경주개 동경이로 추정된다. 넷째, 신라후기 경명왕 때, 사천왕사 벽화 속의 개가 울부짖고, 벽 속의 개가 뜰로 달려 나왔다가 다시 벽 속으로 들어가는 등 망국을 예고한 행위는 4차원적이고 환상적인 즉 매트릭스의 현실, 가상현실의 문학적 표현이다.

이런 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필자는 신라개가 단순한 일반 동물이 아니라 신라문화의 흥망과 신라왕실사의 전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물(靈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신라개 이야기가 가진 문학적, 문화원형적 특성을 해명해서, 신라개를 통한 신라문화의 이해 심화와 다양한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는, 즉 문학이 문화콘텐츠로 정착하여 세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방법으로 문학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¹²⁾

2. 신라개의 역사와 ‘경주개 동경이’에 대한 문헌적 접근

경주개 동경이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문화재청 고시 2012.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경주개 동경이와 개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¹³⁾ 이런 연구들은 경주개 동경이의 발굴과 천연기념물 지정이

12) 주현진, 「문학 문화콘텐츠의 원형, 낭독」, 『국제언어문학』 34집, 2016. 25면.

13) 최석규, 「한국 토종개와 경주 동경개[東京狗]의 역사적 고찰」, 『경주문화논총』 제 10집,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7.

라는 큰 성과로 이루어졌으며, 최석규 교수가 중심이 된 (사) 경주개동경이보 존협회에서는 2014년 창조지역사업(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주하여, 건천읍 용명리 탑골마을에 ‘동경이마을’을 조성하여 개촌 식과 함께 2014년 10월 26일 제1회 개관축제를 열었고, 2016년에는 제3회 개관축제를 개최하였다.

최석규 교수 등은 연구를 통해서 개가 가진 다양한 역할 즉, 집 지키기, 사냥, 수호신, 잡귀와 요괴를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기능과 미리 재난을 경고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제시하였지만,¹⁴⁾ 전문적인 인문학자에 의한 집중적인 연구와 신라개의 문화원형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동경이는 경주지방에 흔히 있었던 꼬리가 없거나 짧은 개¹⁵⁾를 의미한다. 동경이는 경주지역에서 댕개, 댕견, 동경개, 동경이 등으로 불려왔고, 이회승의 『국어사전』(1982년)을 비롯하여 많은 사전에도 등재된 경주지역에서 전래되어 온 개이다. 경주개는 털의 색깔에 따라 백구(白狗), 황구(黃狗), 흑구(黑狗), 호구(虎狗)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에 등록된 개에는 진돗개(진도, 천연기념물 제53호), 삼살개(경산,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주개동경이(경주, 천연기념물 제540호), 풍산개(양강도 김형권군, 북한 천연기념물 제380호, 해제됨)가 있다.

경주개 동경이에 대한 주요한 문헌기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경주개 동경이 관련 주요 문헌 기록과 유물 목록

최석규, 「유물과 고문서, 고분벽화에 나타난 우리나라 토종개의 고찰」, 『경주문화논총』 제11집,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8.

최석규,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 『경주문화』 18호, 경주문화원, 2012.

이창식, 「경주개 동경이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 『신라문화』 제46집,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15.

김미경, 「경주개 동경이 마을」 공간 스토리텔링 로드맵 -용명리 탑골 <경주개 동경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경주문화』 20호, 경주문화원, 2014.

14) 최석규, 「유물과 고문서, 고분벽화에 나타난 우리나라 토종개의 고찰」, 『경주문화논총』 제11집,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8. 202~203면.

15) 김주석, 『경주속담 · 말 사전』, 한국문화사, 2001. 360면.

관련자	자료명	시기, 혹은 생물 연도	내용
	신라 고분 (적석목곽분)	5~6세기경	꼬리가 없는 신라개 토용 출토
김부식	삼국사기(三國史記), 제28권 백제본기 제6	660 (의자왕 20년)	들사슴과 같은 모양[狀如野鹿]의 개
민주면	동경잡기(東京雜記) 1 권 풍속(風俗)	1669 (현종 10년)	꼬리 짧은 개[短尾]를 동경구(東京狗) 라고 함, 경주의 북방이 허한 까닭[北 虛]
남학명	회은집(晦隱集) 5권, 풍토(風土)	1654~1722	경주는 북방이 여유가 없어서 여자들 이 뒷머리에 쪽 찌고, 개도 꼬리가 짧 음, 동경구
유광익	대 동야승(大東野乘) 25집	1720	경주는 북쪽이 허하여 개도 꼬리가 짧 음, 꼬리 짧은 개를 동경구라 불림
이익	성호사설(星湖僿說) 15권, 나속(羅俗)	1740년경	경주는 북쪽이 허하여 여자들이 뒷머 리에 쪽을 찌고, 꼬리 짧은 개를 동경 구라 불림
유득공	영재집 2권, 이십일 도회고시(二十一日懷 古詩), 신라(新羅)	1748~1807	때때로 꼬리 짧은 개가 짖는 소리를 듣네(時聽寥寥短尾猿)
성해응	연경재전집(研經齋全 集) 외집(外集) 58집	1760~1839	꼬리 짧은 개를 동경구라고 부름, 경 주의 북쪽이 허한 까닭임
홍복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 獻備考) 권12, 수이조 (輸移條)	1770	충북 괴산군 연풍리의 의구총 전설. 경주에 사는 아전이 동경이를 데리고, 과거 시험을 위하여 문경새재를 넘어 한양으로 가다가 이곳에서 죽자, 개가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부 친의 무덤을 쓰게 하였고, 지친 개가 죽자 그 옆에 의구총을 조성함. 그래 서 무덤은 쌍분이며, 이곳의 동경이 의구총은 유명함.
이학규	낙하생집(洛下生集) 영남악부(嶺南樂府) 시(詩), 동경구(東京 狗)	1770~1835	동경구(東京狗)는 단미(短尾), 여자는 뒷머리를 쪽머리[북계(北髻)]로 함

이희준	계서야담(溪西野談) 6권	1775~1842	경주는 풍수상 뒤편이 여유가 없는 까닭으로 개의 꼬리가 짧음. 동경구(東京狗)라고 불림, 회은잡지(晦隱雜識)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부록, 구변증설(狗辨證說)	1788~?	경주부의 개는 꼬리가 짧음, 동경구(東京狗) 혹은 녹미구(鹿尾句)라고 함
이의봉	고금석림(古今釋林)	1789	꼬리가 짧은 개를 동경구라 하고, 경주의 북방이 허한 까닭임.(동경잡기 인용)
이유원	임하필기(林下筆記) 11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1814~1888	경주는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는 지형으로 인해 개들은 대부분 꼬리가 없음. 향간에서는 꼬리가 없는 개들을 속칭 동경견(東京犬)이라 부름
강위	고환당수초(古歡堂收艸), 동경도중잡시(東京道中雜詩)	1820~1884	시(詩), 꼬리 짧은 개[短尾尪] 즉 동경구(東京狗)라고 함
	해동지(海東志)	1898	동경구(東京狗)
	경주읍지(慶州邑誌) 3권, 풍속(風俗)	1919	꼬리 짧은 개[短尾, 東京狗], 경주의 북방이 허한 까닭[北虛](동경잡기 인용)
	동경이 사진	1926	경주 황남동 소형 고분 발굴 현장 사진
아키바 타카시 (秋葉隆)	동경이 사진	'1930~1940	울산광역시 학성 종루(태화루) 사진

위의 자료들 가운데 동경이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고, 동경이의 기원과 역사는 백제 말기까지 소급됨을 알 수 있다. 5~6세기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꼬리 짧은 개 토우가 전해진다. 그 실물은 지금의 경주개 동경이 처럼 꼬리가 짧다. 아울러 『삼국사기』에는 의자왕 때 백제의 망국을 암시한 ‘들사슴처럼 생긴 개[狀如野鹿]’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것은 경주개 동경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선중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동경잡기(東京雜記)』(현종 10년, 1669)는 “신라 때에는 수도의 북방이 텅 비었으므로 여자들은 뒷머리에 쪽을 찌었다. 그래서 이를 북계(北髻)라 했는데, 지금도 그렇다. 또한 개 가운데 꼬리 짧은 것을 세상에서는 동경구(東京狗)라고 했다. 이것 또한 경주의 북방이 허(虛)하기 때문이다.”¹⁶⁾라고 했고, 또한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지금 신라의 수도는 북방이 공허(空虛)하다 하여 부녀자들이 머리 뒤를 묶고서는 북계(北髻)라 불렀고, 꼬리가 짧은 개(狗)를 동경구(東京狗)라고 불렀으니, 모두 신라의 풍속이다.”¹⁷⁾라고 했다. 이런 기록은 또 이어진다.

이규경(李圭景)은 “동경구는 꼬리가 짧아 ‘장자구(獐子狗)’, ‘늑미구(鹿尾狗)’”라고도 하였다.¹⁸⁾ 아울러 “경주의 풍수에는 뒷쪽이 여유가 없는 까닭으로 그 지역의 개는 모두 꼬리가 짧아 속칭 동경구(東京狗)라고 한다. 지금 서울에서도 꼬리가 짧은 개를 지목하여 동경구라고 한다.”¹⁹⁾라고 했으며, 또한 이유원²⁰⁾은 “동경의 지형은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형상으로 이 지역에서 나는 개들은 대부분 꼬리가 없다. 그러므로 향간에서는 꼬리가 없는 개를 동경견(東京犬)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이런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꼬리가 짧은 경주지역의 개는 ‘동경구’, 즉 ‘동경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16) 『동경잡기』 권1, 「풍속」 「女子北髻」, “羅時 以國都北方虛缺 女子結髻於腦後 因名 北髻 至今猶然 狗之斷尾者 世謂之東京狗 亦以北方之虛故也.”

17) 이익. 『성호사설(星湖僿說)』 제15권, 「인사문(人事門)」 “今羅之都北方虛缺 故 女子結髻 於腦後因 名北髻狗之短尾者 世謂之東京狗 此皆新羅之俗也.”

18)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부록, 「만물편(萬物篇), 구변증설(狗辨證說)」, “按今嶺南慶州府 犬皆短尾 故名 東京狗 鹿尾狗 卽短尾狗也.”

19) 남학명(南鶴鳴). 『회은집(晦隱集)』 第五. 잡설(雜說) 풍토(風土). “慶州風水無後餘 故其土狗皆短尾 俗稱以東京狗 至今京中 亦目短尾狗曰東京狗.”

20) 이유원, 『임하필기(林下筆記)』, 「지리지」, “東京之形 有頭無尾 犬之生於此地者 多無尾 故俗諺因以無尾犬 謂之東京犬.”



▲ 5~6세기 신라고분 출토 경주개 동경이 토우

그림 1. 5~6세기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개 토우



그림 2. 5~6세기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개토우로 멧돼지와 대치중에 있음



그림 3. 경주개 동경이 모습

이학규(1770~1835)는 「동경구(東京狗)」란 악부시를 썼다.

東京狗尾短後	동경개의 꼬리가 짧아진 후에
東京女北髻首	동경의 처녀는 쪽머리[北髻]를 했네
狗短尾自可嗾	동경개 꼬리는 짧아도 스스로 꼬리칠 수 있지만

北髻女不可偶 북계녀는 두 갈래로 머리를 땡을 수가 없네
 南京女雙髻 남경(南京)의 여자는 쌍다리[두 갈래]를 하므로
 斜見婦北髻 북계머리를 한 부인을 보면
 謂是室女 처녀라 이르고
 不謂是婦 부인이라고는 말하지 않네
 「동경구(東京狗)²¹⁾

이학규의 「동경구(東京狗)」는 위에서 인용한 내용들을 시로 쓴 것이다. 경주의 북산인 백률사가 있는 소금강산(小金剛山, 해발 177m)²²⁾은 다른 방향에 있는 산에 비해 너무 작아서 ‘북허(北虛)’라는 평을 받았다. 따라서 신라 때부터 바위산인 금강산의 이름을 차용해서 ‘소금강산’이라 부르며, 북허의 약점을 비보(裨補)하려고 하였다. 또한 여자들이 머리 뒤편에 쪽을 찌는 것은 이런 비보현상이며, 머리가 아닌 꼬리가 약하기 때문에 동경이도 머리에 비해 꼬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남경(南京)의 여자들은 머리를 두 갈래로 땡는 머리장식을 했는데, 경주부녀는 북쪽 방향의 비보를 위해서, 머리 뒤편으로 하나의 쪽만을 두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북계(北髻)인 것이다. 이런 기록은 조선시대 부녀자들의 머리장식인 비녀의 시원과 활용이 경주지역과 연관이 되고, 이런 북계의 풍속은 동경이의 짧은 꼬리와 같이 경주지역이 가진 북허(北虛)의 지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강위(姜埜, 1820~1884)가 노래한 ‘동경구’라는 시이다.

龍驤豹蔚綺羅地 웅장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땅에
 谷變陵移臺榭傾 계곡 변하고 왕릉 옮겨지고 정자 기울었네
 古國千年名物在 천년의 옛나라에는 이름난 명품이 있어서
 野人籬落吠東京 길손이 담장가에 가까이 가니 동경이가 짖네
 「東京道中雜詩, 東京狗」²³⁾

21) 이학규, 『낙하생집(洛下生集)』 6책, 『영남악부(嶺南樂府)』, 「동경구(東京狗)」.

22) 민주면, 『동경잡기』 「풍속」, 「女子北髻」, “羅時以國都北方虛缺 女子結髻於惱後 因名北髻 至今猶然 狗之短尾者 世謂之東京狗 亦以北方虛故也.”

23) 강위, 『古歡堂收艸詩稿』 卷之二, 「發頭餘草」 「東京道中雜詩」 시주(詩註) “短

조선후기의 시인 강위(姜瑋)의 「동경도중 잡시(東京道中 雜詩)」에 실린, 「동경구(東京狗)」는 동경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위 시에서는 웅장하고 화려했던 신라국의 폐망으로 경주의 산천과 유적들은 모두 훼손되고 변이되었지만, 천년의 나라답게 명품이 있었고, 그 명품이 바로 동경이[東京狗]라는 것이다. 이 시는 동경이에 대한 분명한 찬사이며, 그것의 역사성과 연원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동경이에 대한 문헌적 기록들은 다채롭게 전해진다.

3. 신라 왕실의 후계를 인도한 영물(靈物), 신라개

개는 타고난 후각과 청각으로 인간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미리 알려 준다. 이런 점은 마약 탐지견이나 폭발물 수색견의 역할 등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개는 은폐되고 엄폐된 사물을 꿰뚫어 보는 예지력과 탁월한 감각으로 숨겨진 진실을 알려준다. 개의 이런 능력은 신라의 문헌은 물론 후대의 문건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특히 신라 개는 신라 왕실의 후계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항에서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증왕 이야기는 신라개의 이런 특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제22대 지철로왕의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대로(智大路) 또는 지도로(智度路)이고, 시호는 지증(智證)이다. 시호는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말로 왕을 마립간(麻立干)이라고 한 것도 이 왕 때부터 시작되었다. 왕은 영원(永元) 2년 경진(서기 500)에 즉위하였다.[혹은 신사년(서기 501)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원 3년이다.] 왕은 음경의 길이가 1자 5치나 되어 배필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사람들을 삼도(三道)로 보내어서 배필을 찾았다. 배필을 찾는 사람이 모량부(牟梁部)의 동로수(冬老樹)라는 나무 밑에 이르렀는데 개 두 마리가 북

尾猶 謂之東京狗.”

만 한 똥 한 덩어리를 물고 양쪽 끝에서 다투어 물어뜯고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한 소녀가 말해주었다. “이것은 모량부 상공의 딸이 여기서 빨래를 하다가 숲 속에 숨어서 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알아보니, 그 여자의 신장이 7자 5치나 되었다. 이 일을 갖추어 왕께 아뢰자 왕은 수레를 보내어 그 여자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황후로 삼았고 여러 신하들이 모두 축하하였다.²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가 왕비 후보를 찾았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삼도(三道)에서 왕비 후보를 찾았지만, 마침내 개가 찾아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직 개가 ‘은림(隱林)에서 처녀가 몰래 눈 대변’을 찾아낸 것을 계기로 왕비 후보를 찾았던 것이다.

개들이 찾은 ‘복처럼 큰 똥’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꿈이나 설화에서 똥은 오물이 아니라 재물이자 복이다. 또한 모량부 처녀가 눈 똥은 그녀의 또다른 생산물이다. 즉 떡두꺼비와 같은 아들의 다른 표현이며, 아울러 이 처녀는 지증왕의 생식기에 필적할 음부를 가진 여성이라는 뜻이다. 남다른 크기의 똥을 눈다는 점은 생식기의 크기도 남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증왕의 배필이 되어 지증왕의 아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증왕은 체격이 장대하고 담력이 월등했다고 한다. 따라서 신장이 7자 5치나 되고, 복만 한 크기의 똥을 누는 모량부 처녀는 지증왕의 완벽한 배필이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두 마리 개가 복만 한 크기의 똥을 찾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라 왕실의 안정을 담보할 왕자를 생산할 왕비를 찾았다는 점이다. 온 나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나라의 우환을 이 개들이 찾아서 해결했다는 데 이 이야기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개들은 신라 왕실의 가장 중요한 후계 문제를 해결한 일등공신이며, 해결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마리의 개는 숨겨진 나라의 보물을 찾아낸 영물(靈物)인 것이

24) 『삼국유사』 제1권 기이(紀異), 「지철로왕」. “第二十二智哲老王 姓金氏 名智大路 又智度路 諡曰智證 諡號始于此 又鄉稱王爲麻立干者 自此王始 王以永元二年庚辰即位 (或云辛巳則三年也) 王陰長一尺五寸 難於嘉 發使三道求之 使至牟梁部冬老樹下 見二狗 一屎塊如鼓大 爭其兩端 訪於里人 有一小女告云 此部相公之女子 洗澣于此 隱林而所遺也 尋其家檢之 身長七尺五寸 具事奏聞 王遣車邀入宮中 封爲皇后 群臣皆賀.”

다.

이 지증왕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물(大物) 설화이다. 우리나라 설화 가운데 남성 생식기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들이 많다. 이 설화도 그런 범주에 속하며, 남성 생식기는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지증왕의 생식기는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암시한다. 이런 설화는 남근숭배 사상과도 연관된다.

이 점은 경덕왕의 사례와 비슷하다. “경덕왕은 옥경(玉莖)의 길이가 8촌(寸)이나 되었다.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비를 폐하여 사랑부인(沙梁夫人)으로 봉하였다. 후비 만월부인의 시호는 경수태후(景垂太后)이며 의충(依忠) 각간(角干)의 딸이다.”²⁵⁾라는 내용도 지증왕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다. 경덕왕의 옥경이 커서 왕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왕비를 폐하고 만월부인을 후비로 맞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증왕 설화에 비해 간소화되었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지증왕과 경덕왕은 모두 신라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권력자였다는 점도 같다.

지증왕은 순장(殉葬)을 금지시키고, 국호를 신라(新羅)로 확정했으며, 이사부(異斯夫)를 시켜 우산국을 복속시키고, 왕(王)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경덕왕은 신라를 르네상스로 이끈 임금이었다. 이처럼 큰 남성 생식기는 곧 남성성의 상징이고, 남성성은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

문무왕이 즉위한 용삭(龍朔) 신유(辛酉, 661)에 사비(泗泚, 부여) 남쪽 바다 중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신장이 73자 발의 길이가 6자, 음부의 길이가 3자였다. 혹 신장은 18자이며 건봉(封乾) 2년 정묘(丁卯, 667)의 일이라고도 한다.²⁶⁾

이 내용은 『삼국유사』 「문무왕법민」조의 첫머리에 실린 내용이다. 통일군주의 역사기록 첫머리에 여자의 큰 생식기의 기사를 실은 것은 그만큼, 이 내

25) 『삼국유사』 제1권 기이, 「경덕왕충담사 표훈대덕」. “王玉莖長八寸 無子廢之 封沙梁夫人 後妃滿月夫人 諡景垂太后 依忠角干之女也.”

26) 『삼국유사』 제2권 기이, 「문무왕법민」. “王初卽位 龍朔辛酉 泗泚南海中有死女尸 身長七十三尺 足長六尺 陰長三尺 或云身長十八尺 在封乾二年丁卯.”

용이 특이했기 때문일 것이다. 『삼국유사』의 「선덕여왕지기삼사」²⁷⁾에 나오는 ‘여근곡’ 이야기처럼, 지증왕의 생식기 이야기는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문화적, 사상적으로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 개는 지증왕의 후계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신라 왕실의 패륜을 폭로한 큰개[오(獒)개] 이야기

『화랑세기』는 한국의 역사학계를 논쟁 속으로 인도한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으로 인해 사학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신라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 책을 읽을수록 위서가 아니라 진서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도 확인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흥왕은 재위 27년(566년)에 왕자 동륜(銅輪)을 태자가 삼았고,²⁸⁾ 동륜태자는 진흥왕 33년 홍제(鴻濟) 원년(572년) 3월에 죽었다고 했다. 이후 동생인 사륜(舍輪) 태자가 진흥왕의 뒤를 이어 576년에 임금이 되었다. 그리고 『삼국사기』 「진지왕」조에 따르면, 진지왕의 휘는 사륜(舍輪, 金輪)이요 진흥왕의 차자이다. 어머니는 사도(思道) 부인이고 부인은 지도(知道)부인이다. 왕태자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왕이 돌아가자 진지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²⁹⁾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를 따르면, “제25대 사륜왕(舍輪王)은 시호가 진지대왕(眞智大王)이고 성은 김씨이며, 왕비는 기오공(起烏公)의 딸인 지도부인(知刀夫人)이다. 대건(大建) 8년 병신(서기 576)에 왕위에 올라 나라를 4년 동안 다스렸는데,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여서 나라 사람들이 그를 폐위시켰다.”³⁰⁾고 했다.

27)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선덕여왕지기삼사」.

28)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眞興王)」 27년조. “二十七年 春二月 祇園實際二寺成立王子銅輪爲王太子.”

29)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지왕(眞智王)」조. “眞智王立 諱舍輪[或云金輪] 眞興王次子 母 思道夫人 妃 知道夫人 太子早卒 故眞智立.”

30) 『삼국유사』 권1. 기이 제이. 「桃花女鼻荊郎」. “第二十五 舍輪王 諡眞智大王 姓金氏 妃起烏公之女 知刀夫人 大建八年丙申即位[古本云 十一年己亥 誤矣] 御國四年 政亂

이처럼 태자 동륜이 죽고, 왕자 사륜이 태자가 되고, 이어서 왕이 된 자세한 내력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실려져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동륜과 사륜 태자 이야기는 신라사의 대표적인 미스터리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런 문헌적 공백은 『화랑세기』가 재구해 주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흥왕(眞興王)의 장자 동륜(銅輪)태자는 부왕(父王)의 후궁인 보명(寶明)궁주(宮主)가 사는 전각의 담을 밤에 넘어갔다가 큰개[獒]에 물려 죽었다. 진흥왕이 동륜태자의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자가 보명궁주는 물론 왕의 다른 후궁인 미실(美室)과도 사통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라왕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화랑세기』는 이 죽음은 홍제(鴻濟) 원년(572년) 3월에 일어난 ‘큰개 사건[獒事]’³¹⁾으로 표기하고 있다. ‘큰개 사건[獒事]’은 신라사와 신라 왕실을 뒤엎은 매우 엽기적인 이야기로서, 신라왕실의 부도덕성과 폐륜을 만천하에 알려준 사건이며 신라 1,0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불륜 행위였다.

『화랑세기』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보명궁주(寶明宮主)가 태자의 연모를 받았으나, 몸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태자는 이에 장사(壯士) 수인(數人)과 더불어 궁의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 궁주가 미실과 더불어 왕의 총애를 다룰 수 없음을 알고 감히 태자를 힘써 거부하지 않아 기롱짓거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태자가 매일 밤마다 넘어 들어왔다. 이레째 밤에 태자가 아무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들어가다 큰개에게 물렸다. 궁주가 안고 궁중으로 들어갔는데, 동틀 무렵 죽었다. 진흥제가 태자의 종인들을 조사하였는데, 미실과 미생의 낭도들이 많았다. 미실의 추행이 종인(從人)들의 입에서 많이 나왔다. 제가 비로소 의심하여 큰 옥사를 일으키려 하자, 미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목 놓아 울고 궁을 나갔다. (세종)공 또한 전군의 위(位)를 사퇴했다. 사도(思道) 왕후가 간언하여 말하기를 삼주(三柱)의 맹세가 있습니다. 어찌 천한 무리들의 어지러운 말로 총첩의 은혜를 빼앗고, 죽은 아

荒姪 國人廢之.”

31) 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대역화랑세기』, 소나무, 2009. 87면. “鴻濟元年三月 銅太子以寶明獒事卒.”

들의 혼령을 아프게 하려 합니까?라고 했다. (진흥)제가 이에 불문에 부치라는 조칙을 내렸다.³²⁾

미실(美室)이 평소에 (동륜) 태자를 ……했는데, 정숙한 어머니로서 (왕후궁, 皇后宮)에 들어가 전주(殿主)가 되었다. (진흥)제가 백년 후 …할까 염려하여, 감히 태자(太子)를 거부하지 못하고 서로 이어 좋아했다. 태자는 조심함이 없이 구함이 매우 심하였다. 미실은 심하게 많은 것이 탄로될까 염려하여 미생(美生)과 의논하여 (동륜)태자가 밖에 나가 놀 때 유희(遊花) 중 아름다운 사람을 택하여 많이 천거했다. (동륜)태자와 더불어 미생(美生)의 무리가 날마다 밖에서 황음한 짓을 일삼았다. 홍제(鴻濟) 원년(572년) 3월 동태자가 보명궁의 큰개에 물리는 일로 인하여 죽었다. 대왕은 태자의 종인(從人)을 가려보니 미실의 낭도에 속한 자가 많았다. 미실…태왕 또한 새어나온 말을 얻어들은 바로는 미실의 방탕함이 …이 없어…, 세종(世宗)이 부름을 받아 들어와 미실이 원화(源花)를 물러나는 것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하였다.³³⁾

그때 금태자(金太子, 금륜) 또한 미실(美室)과 서로 사귀어 정을 맺는 것을 좋아하여 설원(薛原), 미생(美生) 등과 방외우가 되었다. 미실이 비록 이미 출궁하여 깨끗하게 살 것을 공언했으나, 금태자와 더불어 후사를 약속했다. 진흥제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제할 수가 없어 미실을 다시 (궁에) 불러들였다. (진흥(眞興))제가 죽고 금(金)태자가 왕위에 즉위했다. 인하여 미실을 받아들였는데 세상의 여론(外論) 때문에 황후로 봉하지 못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빠져 미실을 심히 총애하지 않았다. 미실은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노하여 마침내 사도태후(思

32) 동상, 177~179면. 「十一世 夏宗」. “時宝明宮主常爲太子所慕 而不肯相許 太子乃與壯士數人 超宮牆而入 宮主自知不得與美室爭寵 不敢力拒太子而事諧 自後太子連夜超入 至第七夜太子獨入無伴 爲獒犬所咬 宮主抱至宮中 至曉而薨 帝乃按太子從人 多美室·美生之郎徒 美室之醜行多出從人之口 帝始疑之 將成大獄美室懼禍及己 號泣出宮 公亦辭殿君之位 思道皇后諫之曰 三柱之誓在焉 何以賤徒之亂言 欲割寵妾之恩 而傷亡兒之靈 帝乃詔勿問.”

33) 동상, 85~87면. 「六世世宗」. “美室素?太子 貞母入爲殿主 恐帝百歲後爲?子? 不敢拒太子而密相續好 太子無?求之益甚 美室恐大繁爲露 乃與美生計太子外遊 擇遊花之美者 多薦之?○○子與美生之徒日事外荒 及爲鴻濟元年三月 銅太子以宝明葬事卒 大王乃索 太子從人多屬美室郎徒 美室?○○○○○大王亦漏聞 美室放蕩無○○○○(世)宗 乃召入之 許美室辭源花 而?○(世)宗.”

道太后)와 함께 낭도를 일으켜 (진지왕)을 폐위하고 동(銅) 태자의 아들 백정공(白淨公)을 즉위시키니, 이가 진평대제(眞平大帝)이다. 진평제는 어리고 미실은 이미 늙었기에 스스로 후궁(後宮)의 일을 맡았는데, 조정의 일을 제 마음대로 함이 많았다.³⁴⁾

위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진흥왕의 후궁에 해당되는 미실(美室)이 장자인 동륜태자에 이어 차자인 금륜태자와 사통하고, 금륜태자를 왕으로 옹립한 뒤,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며 진지왕의 모후(母后)인 사도부인과 공모하여 진지왕을 폐위하고, 동륜(銅輪) 태자의 아들 백정공(진평왕)을 옹립하였다. 『화랑세기』의 이 내용은 신라사의 한 가지 미스터리를 해명해 주는 결정적인 문건이다.

동륜태자의 죽음은 ‘큰개 사건[獒事]’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참담한 사건을 순화한 기록이다. 동륜태자가 물려 죽은 ‘큰개[獒]’는 서역(西域)에 있는 서려국(西旅國)의 특산품이다. 대표적인 맹견인 이 개는 크기가 4척이며 그 이름은 오(獒)로 불린다.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 따르면 ‘여오(旅獒)’는 고대 서융(西戎)의 여국(旅國)에서 태어난 큰개이며,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여오(旅獒)」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니 마침내 사방의 모든 구이(九夷)와 팔만(八蠻)에 길이 통하였다. 서려(西旅)에서 큰개[旅獒]를 공물(貢物)로 바치자, 태보(太保: 소공(召公))가 마침내 「여오(旅獒)」편을 지어서 왕(王)을 경계하였다.³⁵⁾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니, 사방의 여러 민족들이 다투어 귀부하였고, 서려국(西旅國)에서 큰개를 공물로 바치자,

34) 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대역화랑세기』, 소나무, 2009. 177~179면. 「十一世夏宗」, “時金太子亦好美室交結 薛原美生等爲方外友 美室雖已出宮 聲言淨業而未嘗閑居 遂與金太子約以後事 帝亦未幾而不能自制 復召入? 帝崩而金太子即位 仍納美室而以外議不能封以皇后 且荒于外 不甚寵 美室怒其違約 遂與思道太后發郎徒廢之 立銅太子之子白淨公 是爲眞平大帝幼 美室已衰而自當後宮 而多弄朝廷事.”

35) 성백효 역주, 『서경집주』 하, 「周書, 旅獒」. 전통문화연구원, 1998. 83~84면. “惟克商 遂通道于九夷八蠻 西旅底貢厥獒 太保乃作旅獒 用訓于王.”

태보(太保) 벼슬에 있던 소공(召公)이 그 공물을 받지 말라며, 「여오(旅獒)편」을 지어 무왕을 경계하였다는 것이다. 또 「여오」편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있다. “서려(西旅)는 서방의 오랑개의 나라 이름이고, 개의 키가 4척인 것을 오(獒)라 한다.³⁶⁾고 했다. 또 『설문해자』에는 “이 개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부릴만하다”고 하였고, 『좌전 공양전』에는 “진(晉)나라 영공(靈公)이 정적(政敵)인 조순(趙盾)을 죽이는데 이 개를 활용하였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위 기록을 통해 서려(西旅) 지역의 특산품인 여오(旅獒)가 수입되어, 서라벌 보명공주의 집에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동륜태자는 시중드는 사람 없이 보명공주의 담을 밤에 몰래 넘다가 이 개에게 물려 참담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서려국의 오(獒)개는 크고 무서운 맹견이지만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 충성심이 강한 개이다.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 정적을 물어 죽이는데 활용된 것처럼, 오(獒)개는 침입자인 동륜태자를 물어 죽이고, 자신의 집을 잘 지킨 충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獒)개는 신라사와 신라왕실사를 뒤흔든 주인공이며, 신라왕실과 귀족들의 문란한 성문화와 폐륜사건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 올린 아주 특별한 개였음을 알 수 있다.

5. 백제 멸망을 예견한 개, 동경이 이야기

일반적으로 개는 무속의 저승 설화에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메신저의 기능한다. 이런 이유로 고구려 각저총의 진실과 현실의 통로 한편에는 개가 그려져 있다.³⁷⁾ 민간에서 개는 벽사의 능력³⁸⁾을 가진 동물로 인식되며, 아울

36) 동상, “西旅 西方蠻夷國名 犬高四尺 曰獒.”

37) 허균, 『십이지의 문화사』, 돌베개, 2010. 65면.

38) 이런 벽사의 기능을 가진 그림을 ‘문배도(門排圖)’라 부른다. 『조선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2007. 179~180면. 홍성모, 『동국세시기』 「정월 원일조」. “도화서(圖畫署)에서는 수성선녀도(壽星仙女圖)와 직일신장도(直日神將圖)를 그려 임금에게 바치고 또 서로 선물하는데 이것을 세화(歲畫)라고 하며 축하의 뜻을 나타낸다.

러 개는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여 미세한 냄새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다.³⁹⁾ 따라서 개는 나라의 흥망에는 대한 전조(前兆)를 감지해 낸다.



그림 4. 건천읍 용명리 탑골, '동경이 마을'에 그려진 '동경이 문배도'(2014년, 이태희 작)

이런 망국의 전조는 후대의 호사가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화제였다. 이런 점은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의자왕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 백제의 망국 군주인 의자왕은 여러 가지 망국의 전조들을 오독(誤讀)하여 나라의 폐망을 앞당긴 인물이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조에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편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대표 사례는 「의자왕 16년」(서기 660)조에 실려 있다.

귀신 하나가 궁궐 안에 들어와서 큰소리로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 라고 외치다가 곧 땅 속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괴이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땅을 파게 하였다. 석 자쯤 깊이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등에 ‘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라고 쓰여 있었다. 임금이 무당에게 물으

또 황금갑옷을 입은 장군상을 그려 바치는데 크기가 한길이 넘는다. 한 장군은 도끼를 들고 다른 장군은 절월(節鉞)을 들고 있다. 이 그림을 대궐문 양쪽에 붙인다. 이것을 문배(門排)라 한다(圖畫署 畫壽星仙女圖 直日神將圖 獻于公亦相贈遺 名曰歲畫 以寓頌祝之意 又畫進金甲二將軍像 長丈餘一持斧一持節 揭于闕門兩扇 名曰門排.)”

39) 허균, 『십이지의 문화사』, 돌베개, 2010. 65면.

니 무당이 말하였다. “등근 달과 같다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니 가득 차면 기울게 되는 것이며, 초승달과 같다는 것은 가득 차지 못한 것이니 가득 차지 못하면 점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그를 죽여 버렸다. 어떤 자가 말하였다. “등근 달과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것이요, 초승달 같다는 것은 미약하다는 것이니, 생각해보건대 우리나라는 왕성해지고 신라는 차츰 쇠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기뻐하였다.⁴⁰⁾

주지하듯이 이런 내용은 의자왕이 “백제는 보름달과 같고 신라는 초생달과 같다[百濟同月輪 新羅如月新]”는 내용을 “백제의 멸망으로 해석한 무당은 죽이고, 백제는 등근 달과 같이 왕성하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이 미약하다”고 해석한 무당의 말을 듣고서 기뻐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망국의 경고를 오만한 의자왕은 결국 망국의 임금이 되었다.

위 인용문에 함께 기록된 내용 가운데 다음의 글이 있다.

모습이 들사슴처럼 생긴 개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사비하(泗泚河) 언덕으로 와서 왕궁(王宮)을 향하여 짓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왕도(王都)의 여러 개들이 길가에 모여서 짓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얼마 후에 곧 흩어졌다.⁴¹⁾

모습이 ‘들사슴처럼 생긴 개[狀如野鹿]’가 서쪽에서 사비하(泗泚河) 언덕으로 와서 왕궁을 향해 짓다가 사라졌고, 이에 왕도의 뭇개들도 모여서 울부짖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들사슴처럼 생긴 개[狀如野鹿]’는 울음으로 백제의 불행을 예견한 것이며, 왕도의 뭇개들도 들사슴개를 따라 울었다고 했는데, 이는 들사슴개가 그 개 무리의 리더였다는 뜻이고, 모든 개들이 울음으로 백제의 망국을 예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내용은 앞의 “백제는 보름달과 같고 신라는 초생달과 같다[百濟同月輪 新羅如月新]”는 내용처럼

40)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6, 「의자왕 20년」. “有一鬼入宮中 大呼 百濟亡 百濟亡 卽入地 王怪之 使人掘地 深三尺許 有一龜 其背有文曰 百濟同月輪 新羅如月新 王問之 巫者曰 同月輪者滿也 滿則虧 如月新者未滿也 未滿則漸盈 王怒殺之 或曰 同月輪者盛也 如月新者微也 意者國家盛 而新羅寢微者乎 王喜.”

41) 동상, “六月 「중략」 有一犬狀如野鹿 自西至泗泚河岸 向王宮吠之 俄而不知所去 王都群犬集於路上 或吠或哭 移時卽散.”

백제 망국의 전조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들사슴처럼 생긴 개[狀如野鹿]’가 어떤 개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백제의 망국을 경고한 개는 ‘경주개 동경이’로 추측된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구변증설(狗辨證說)」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노루개는 즉 꼬리가 짧은 개이다. 지금의 영남 경주부(慶州府)의 개는 모두 꼬리가 짧다. 고로 이름을 동경구(東京狗)라고 하니, 꼬리가 사슴처럼 생긴 개, 즉 꼬리가 짧은 개이다.⁴²⁾

영남 경주부의 개는 모두 꼬리가 짧다. 그래서 이름을 동경구(東京狗)라 했고, 꼬리가 사슴처럼 생긴 개이며, 꼬리가 짧은 개라는 것이다. 곧 ‘들사슴처럼 생긴 개[狀如野鹿]’와 ‘꼬리가 사슴처럼 생긴 개[鹿尾狗]’는 즉 경주개 동경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슴처럼 생긴 개는 몸체가 서로 비슷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슴처럼 ‘꼬리가 짧은 개’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꼬리가 짧은 신라 토종개인 경주개 동경이가 백제의 망국을 예견했다는 점이다. 개는 특별한 청각과 후각으로 인간들이 느끼지 못하는 현상을 알려준다. 결국 이 기록은 동경이가 백제와 신라의 멸망과 망국을 예견했던 영물(靈物)이자 명견(名犬)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외에도 신라개가 미래의 일을 예견한 사례는 많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조」에 따르면, 53년(서기 631) 봄 2월, 흰 개가 궁궐의 담장에 올라갔다. 여름 5월, 이찬 칠숙(柒宿)과 아찬 석품(石品)이 반란을 꾀하였다. 임금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칠숙을 붙잡아 동쪽 시장에서 목 베고 또 구족(九族)을 멸하였다.⁴³⁾ 아울러 『삼국사기』 「신라본기 성덕왕조」에 따르면, 개가 재성

42)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鳥獸類·獸·狗辨證說」, “獐子狗 卽短尾狗也 按今嶺南慶州府 犬皆短尾 故名東京狗 鹿尾狗 卽 短尾狗也”

43) 『삼국사기』 제4권 신라본기 제4. “五十三年 春二月 白狗上于宮牆 夏五月 伊滄柒宿 與阿滄石品謀叛 王覺之 捕捉柒宿 斬之東市 并夷九族.”

(在城)의 고루(鼓樓)에 올라가 삼일간 올었다. 36년 봄 2월 <중략> 왕이 죽었다. 시호를 성덕이라 하고 이거사(移車寺) 남쪽에 장사를 지냈다.⁴⁴⁾ 이런 사례처럼 신라개는 왕실의 변란을 예고하고, 성덕왕의 죽음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신라개의 탁월한 영적(靈的)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6. 사천왕사 벽화 속의 신라개와 가상(假想) 현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개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신라의 54대 경명왕(景明王, 917~924)조에 실려 있다. 경명왕은 포석정에서 견훤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경애왕(景哀王)의 바로 전대의 왕이다. 경명왕 때는 신라가 이미 망국으로 치닫던 시기로 정치가 도탄에 빠지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는 난정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국의 성지이자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운 사천왕사에서 신라의 번고를 예견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은 백제의 의자왕 때 일어난 현상과 비슷하다.

다음은 『삼국사기』에 실린 내용이다.

경명왕 3년(서기 919), 사천왕사(四天王寺)의 소상(塑像)이 잡고 있던 활줄이 저절로 끊어지고 벽화 속의 개에게서 소리가 났는데, 개가 짖는 것과 같았다.⁴⁵⁾

다음은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이다.

제54대 경명왕(景明王) 시대인 정명(貞明) 5년 무인(서기 918)에 사천왕사

44) 『삼국사기』 제8권 신라본기 제8. “狗登在城鼓樓 吠三日. 三十六年 春二月 遣沙浪金抱質入唐賀正 且獻方物 王薨 諡曰聖德 葬移車寺南.”

45) 『삼국사기』 제12권 신라본기 제12, 「경명왕」. “三年 四天王寺塑像所執弓弦自絕 壁畫狗子有聲 若吠者.”

(四天王寺)의 벽화 속의 개가 짖었다. 그래서 3일이나 불경을 외워 쫓아냈지만 반나절 만에 또 짖었다. 7년 경진(서기 920) 2월에는 황룡사(皇龍寺)의 탑 그림자가 금모(今毛) 사지(舍知)의 집 뜰에 한 달이나 거꾸로 있었다. 또 10월에는 사천왕사의 오방신(五方神)의 활시위가 모조리 끊어졌고, 벽 속의 개가 뜰로 달려 나왔다가 다시 벽 속으로 들어갔다.⁴⁶⁾

위에 인용한 내용은 『삼국사기』에 비해 『삼국유사』의 것이 자세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이상한 징조를 예견하고 있지만, 『삼국사기』는 건조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치중한 것에 비해 『삼국유사』에는 곡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화중지병(畫中之餅)이라는 말이 있다. ‘병풍 속의 그림 떡’이란, 먹지 못하는 떡, 형태만 있고 구실은 하지 못하는 사물이란 뜻이다. 사천왕사의 벽화 속의 개도 그림 속의 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개가 짖고, 사천왕사의 뜰에 까지 나왔다가 다시 벽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은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에는 『삼국사기』 열전의 「솔거(率居)」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까마귀, 솔개, 제비, 참새 등이 솔거가 그린 황룡사 벽화의 노송(老松)을 보고 날아와서 앉으려다가 떨어지곤 했다는 전설 같은 벽화 이야기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솔거(率居)는 신라인이다. 출신이 미천하여 집안 내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일찍이 황룡사(皇龍寺) 벽에 노송을 그렸는데 몸통과 줄기는 비늘처럼 터져 주름졌고 가지와 잎은 열기설기 굽어져서 까마귀, 솔개, 제비, 참새가 이따금 멀리서 바라보고 날아들다가 벽화에 도달해서는 잘못 디더 헤매다가 떨어지곤 하였다. 세월이 오래 되어 색이 바래지자 절의 중이 단청으로 덧칠을 했더니, 까마귀와 참새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 또 경주 분황

46) 『삼국유사』 제2권 기이, 「경명왕」. “第五十四 景明王代 貞明五年戊寅 四天王寺壁 畫狗鳴 說經三日禳之 太半又日鳴 七年庚辰二月 皇龍寺塔影 倒立於今毛舍知家庭中一 朔 又十月 四天王寺五方神弓弦皆絕 壁畫狗出走庭中 還入壁中.”

사(芬皇寺)의 관음보살(觀音菩薩)과 진주(晋州) 단속사(斷俗寺)의 유마상(維摩像)이 모두 그가 그려 남긴 것인데 세상에서 신화(神畫)로 전해져 온다.⁴⁷⁾

이 이야기는 술거가 그린 그림이 실물과 같다는 의미, 곧 명작, 신화(神畫)로 이해되지만, 사천왕사의 이야기는 술 취한 사람의 표현처럼 “길이 일어서고 전봇대가 눕고, 멀쩡한 건물이 두세 개로 보이며, 꿈인 듯 환상인 듯 헛갈리는 상황”을 전달해준다. 사천왕사 벽화 속의 개가 실제처럼 짚고, 또 사천왕사의 뜰을 헤매다가 다시 벽화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는 4차원적인 이야기이다. 즉 매트릭스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이야기인 것이다.

사천왕사 벽화 속의 ‘개 이야기’ 등은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나게 한다. 이 영화는 워쇼스키 형제가 각본, 감독을 맡은 영화로 1999년 1편이 개봉되었으며, <매트릭스 2, 리로디드>가 2003년 5월에, <매트릭스 3, 레볼루션>이 2003년 11월에 개봉되었다.⁴⁸⁾ <매트릭스>는 미래세계를 배경으로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에 대항하는 인간들 사이의 대결을 그린 공상과학영화이다. 매트릭스는 수학에서 행렬, 주물을 만드는 거푸집, 자궁, 모체 등을 뜻하는 말로, 영화에서는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자 가상현실이다.

감독인 워쇼스키(Wachowski) 형제가 만화책과 아시아의 무술영화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매트릭스>는 만화적인 상상력과 동양적인 액션이 혼합된 영화로 인간들의 삶이 단지 기계가 만들어 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철학적 주제와 험난한 영상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⁴⁹⁾

매트릭스의 사례처럼 벽화 속의 개가 실제처럼 짚고, 벽 밖으로 들락날락

47) 『삼국사기』 제48권 열전 제8, 「率居」. “率居 新羅人 所出微 故不記其族系 生而善畫 嘗於皇龍寺壁畫老松 體幹鱗皴 枝葉盤屈 烏鳶燕雀 往往望之飛入 及到 蹠蹠而落 歲久色暗 寺僧以丹青補之 烏雀不復至 又慶州芬皇寺觀音菩薩 晋州斷俗寺維摩像 皆其筆蹟 世傳爲神畫.”

48) 감독 : 앤디 워쇼스키, 래리 워쇼스키, 제작 : 조엘 실버, 각본 : 앤디 워쇼스키, 래리 워쇼스키, 주연 : 키아누 리브스 등.

49)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매트릭스(The Matrix)」.

하는 행위는 분명한 땅국의 징조이고 경고이지만, 개가 벽화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는 행위 등은 단순한 경고만이 아니라, 보는 이에게는 환상과, 사차원의 세계를 보여준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시공의 한계를 초월하고 벽과 경계를 넘어서는 사천왕사의 개 이야기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상현실의 실제화인 것이다.

이 자료는 앞으로 경주개 동경이를 가상 현실화, 즉 매트릭스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이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다. 사천왕사의 벽화 이야기는 신라개의 예견성, 우수성, 신령성을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동경이를 현대의 콘텐츠사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문화자원이다.

7. 맺음말

개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반려동물로서, 인류와 인류의 문화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특히 많은 역사서와 구전설화에도 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진다. 특히 한국고대사의 주류를 이루는 신라의 역사서에도 개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양하게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역사와도 깊이 관련된다.

한국의 개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은 즉 의견(義犬), 충견(忠犬)의 이미지와 ‘개새끼’란 단어처럼 비속성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는 이중성을 가지지만, 신라문화 관련 문헌에 나타난 신라개의 특성과 이미지는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특히 5~6세기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개토우 33점 가운데 15~16개는 꼬리가 짧아, 천연기념물 제540호(2012. 11, 문화재청)로 지정된 ‘경주개 [犬] 동경이’의 조상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신라문화 관련문헌에 나타난 신라개는 경주개 동경이의 역사적 연원과 그 원형적 모습을 짐작하게 해준다.

지금까지 전개한 신라문화 관련 문헌에 나타난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에 문학적, 문화원형적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개는 생식기가 큰 지증왕의 배필을 찾게 해서, 왕자를 생산하게

하여 신라왕실을 안정시킨 매우 특별한 영물(靈物)이었다.

둘째, 서역에서 수입된 큰개[오(獒)개]가 진흥왕의 ‘동륜태자를 물어죽인 일[獒事]’은 신라왕실의 부도덕과 엮기적인 폐륜을 만천하에 알린 대사건이었다. 이는 개가 신라사와 왕실사를 뒤흔든 대사건의 주인공이었고, 그 사건의 중심에 큰개[獒]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의자왕에게 백제의 망국을 예고한 개는 ‘들사슴처럼 생긴 개[狀如野鹿]’였다. 그런데, 이 개는 ‘꼬리가 사슴처럼 생긴 개[鹿尾狗]’, 즉 경주개 동경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넷째, 사천왕사 벽화 속의 개가 사천왕사의 딸을 배회한다는 내용은 망국의 예고이지만, 그 개들의 행위는 4차원적이고 환상적이다. 즉 매트릭스의 현실, 가상현실인 것이다. 이것은 경주개 동경을 산업적, 문화적, 콘텐츠적으로 직접 가공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문화원형적 자산이다.

다섯째, 신라개는 신라왕릉의 호석 등에 새겨진 십이지상의 술상(戌像)처럼 벽사의 기능을 포함하여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개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개 민속과 개 문화 등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여섯째, 후대의 개는 주로 의견(義犬), 충견(忠犬)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개 새끼’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속성도 가지지만, 신라의 개는 충견과 벽사의 이미지도 가졌고 아울러 신라왕실의 흐름과 나라의 흥망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라개는 숨겨진 것을 찾아내고, 신라왕실의 후계구도를 흔들고, 백제와 신라의 망국을 예견하고 경고하는 신비하고 탁월한 감각을 가진 영물(靈物)의 이미지는 분명하게 가지지만 개의 비속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당대의 신라개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신라인의 삶에 깊이 연관된 ‘특별하고 뛰어난 개[靈物]’라는 원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는 (사)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에서 주도하는 2014년 창조지역사업의 일환으로 건천읍 용명리 탑골마을에 조성된 ‘동경이마을’ 설립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기 개최된 제1회~3회(2014~2016년) ‘개관축제’는 물론 차후 동경이 콘텐츠 개발과 동경이 스토리텔링의 자원으로

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ABSTRACT]

Study on the culture type of Silla dog and Silla dog story

Kang-seogkeun(Dongguk Univ.)

This paper examine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illa Dog and Silla dog stories in the Silla literature. Donggyeong Dog, a local dog in Gyeongju,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Monument No. 540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2012. Since then, Topgol Village, Yongmyo-ri, Jungcheon-eup, Gyeongjusi city, has designated 'Donggyeong Dog village' and 'Gaepan Festival' was held here for the third time until 2016.

Dogs are very friendly animals that have been with the history of mankind since about 14,000 years ago. In Korea, humans and dogs have been together since Neolithic times. The short-tailed Gyeongju dog, Donggyeong Dog, is also found in the clay dolls from the Silla Mound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and Silla literature. The external features of Donggyeong Dog are similar to the Jindo dog, but the tail is as short as the deer.

The common images of Korean dogs are strong in righteousness, loyalty, but the images and role of Silla Dog are more diverse. The Silla dog was a very special creature that stabilized the royal family of Silla by producing a prince that allowed to find the queen of the King Ji-jeung

Silla dog was a very special creature. According to the records, Silla dog found the queen of King Ji-jeung, whose genitalia are very large, to allowed to produce a price that stabilized the royal family. In addition, the case that the big dog imported from Central Asia bites the King of Jin Heungang's prince and killed him, informed a confused sex life of the royal family of Shilla.

The dog that prophesied the collapse of Baekje to King Euija was a dog whose tail was like a deer, Donggyeong Dog. In addition, the story that the drawing of a dog in the murals of Sachunwangsa Temple came out of the wall and predicted the collapse of Silla kingdom is an interesting material that can be processed into the reality of the Matrix and the story of virtual reality. Overall, Silla dog has a very colorful content and a prototype of the story.

Therefore, the story of Silla dog and Silla dog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research for Korean Dog as well as the basic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og museum, and Theme park. It will also contribute to and industrial, cultural and educational utilization of various Silla cultures.

Key Words : Silla Dog, Gyeongju Dog, Natural Monument project, Sachunwangsa Temple(四天王寺), the culture type, Donggyeong Dog village, matrix.

참고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민주면, 『동경잡기』
 이규경, 『오주연문전장산고』
 이익, 『성호사설』
 홍복한, 『증보문헌비고』
 홍성모, 『동국세시기』,
 이유원, 『임하필기』
 강석근 · 이창식 외, 『경주개동경이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미출간 보고서, 2014. 12.
 강석근 편, 『경주말[語]의 보존과 활용』,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16.
 9-309면.
 고권, 「조선시대 견도(犬圖)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1-80면.
 국립경주박물관,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 2011. 8-173면.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세시기』 III, 2007.
 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대역 화랑세기』, 소나무, 2009. 5-494면
 김미경, 「‘경주개 동경이 마을’ 공간 스토리텔링 로드맵 -용명리 탐골 <경주개 동경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경주문화』 20호, 경주문화원, 2014. 306-326면.
 김영자, 『한국의 벽사부적』, 대원사, 2008. 7-166면.
 김종대, 「개의 민속과 상징」, 김선희 외, 『민속학적으로 본 열두 띠 이야기』, 집문당,
 1996. 347-384면.
 김주석, 『경주속담 · 말 사전』, 한국문화사, 2001. 5-700면.
 김환대, 『신라왕릉의 십이지신상』, 한국학술정보, 2009. 9-152면.
 성백효 역주, 『서경집주』, 하, 전통문화연구원, 1998.
 손혜리, 「낙하생(洛下生) 이학규(李學逵)의 영남악부(嶺南樂府) 재론(再論)」, 『영남
 학』 24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279-381면.
 오훈희, 『매트릭스 사이버페이스 그리고 선(禪)』, 호미, 2003. 5-262면.
 오컴(편준석, 김선민 등) 지음, 『가상현실』, 미래의 창, 2017. 4-238면.
 이근직,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2012. 15-576면.
 이종철, 『한국의 성 숭배문화』, 민속원, 2003. 5-343.

- 이창식, 「경주개 동경이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 『신라문화』 제46집,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15. 387-409면.
- 이채경, 「동경이 및 개 관련 자료집성」, 강석근·이창식 외, 『경주개동경이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미출간 보고서, 2014. 12.
- 주현진, 「문학 문화콘텐츠의 원형, 낭독」, 『국제언어문학』 34집, 2016. 25-42면.
- 천진기,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1-316면.
- 최민희, 「성덕왕릉 조영과 12지신상의 출현」,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97면.
- 최석규, 「한국 토종개와 경주 동경개[東京狗]의 역사적 고찰」, 『경주문화논총』 제10집,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7. 182-204면.
- _____, 「유물과 고문서, 고분벽화에 나타난 우리나라 토종개의 고찰」, 『경주문화논총』 제11집,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8. 194-219면.
- _____,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동경이」, 『경주문화』 18호, 경주문화원, 2012. 255-263면.
- 하지홍, 『하지홍 교수의 개 이야기』, 살림, 2008. 10-160면.
- 하지홍·임인학, 『한국의 토종개』, 대원사, 1997. 6-126면.
- 허 균, 『십이지의 문화사』, 돌베개, 2010. 5-176면.
- 황경숙,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월인, 2000. 9-336면.

이 논문은 2017년 3월 3일 접수되어 4월 3일까지 심사받아 4월 10일 게재 확정됨.